

업무량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개선에 관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 Engineer Placement According to Workload

이택운*
Lee, Taick-Oun

이국현**
Lee, Kook-Hyun

Abstract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M(Construction Management)system in the Basic Law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1997, the recent arrange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 engineers in public sector buildings has generally been based on architecture · civilengineering · machinery · landscaping, electricity, telecommunication, fire fighting by the number of M/M(Man and Month). In the field of engineers arrangement in each field, the arrangement of M/M according to the workload of architecture, civilengineering, machinery, landscaping and electricity is inadequate causing conflicts and C.M among construction management engineers.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basic research that is used to identify the problems through the questionnaire and to prepare future improvement plans.

키 워 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사업관리, 업무량, 인·월수

keywords : construction management engineer, construction management, workload, the number of M/M(Man Month)

1. 서 론

1997년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C.M : Construction Management)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근의 공공부문 건축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는 일반적으로 건축·토목·기계·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로 대별하여 인·월(M/M : Man Month)수로 한다. 실무에서 분야별 기술자 배치에 있어 건축·토목·기계·조경분야와 전기분야의 업무량에 따른 인·월수 배치가 부적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간에 갈등과 건설사업관리에 차질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설문조사를 통한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기존연구의 동향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에 관련한 기존연구의 동향은 표 1.에서와 같이 건설사업관리의 대응방안, 해외진출 전략수립, 건설감리제도의 성과분석, 건설현장 관리기술, 문화재수리공사 감리대가, 건설관리업무,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가 등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업무량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월수 배치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를 진행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설문조사

업무량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 표 2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설문조사는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담당 기술자에게 80부를 발송하여 75부를 회수하였다. 이 75부의 설문조사지 중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업무 담당자들이 본인이 담당하는 분야의 설문항목에 응답하는 불합리한 점을 노출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의 주요 공종은 건축이기 때문에 건설사업관리 단장 및 건축분야 특급 응답자 46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이, 건설사업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공시설에서 분야별 기술자 배치인원, 배치기간, 업무범위의 순으로 나타났고, 공동주택은 기술자의 배치인원, 업무범위 및 배치기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 영남이공대학교 건축과 교수, 공학박사, 교신저자(cmrlee@ync.ac.kr)

** 동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상무

표 1. 기존연구의 동향

분류	연구자	연구내용
건설사업 관리 및 감리	신현정 외 1인(2014)	건설사업관리 제도개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제시
	오은호 외 3인(2011)	건설감리업계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방향 제시
	한재구 외 3인(2011)	건설감리제도의 성과분석
	송상훈 외 1인(2010)	건설현장 관리기술에 대한 한·일간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박환표 외 3인(2010)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대가 작성방향 제시
	윤준선 외 2인(2006)	건설관리(CM)업무 활성화를 위한 종합감리업무 수립방안 제시
	정재영 외 1인(2006)	정부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대가 산정방안 제시

표 2. 설문조사

구 분	내 용
설문조사 기간	2017년 1월 ~ 2018년 2월
설문조사 대상	공공시설·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 단장 및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설문조사 설문항목	건설사업관리 해당분야, 실무경력 년수,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축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분야별 배치의 문제점(기술자 배치인원의 부적절, 기술자 배치기간의 부적절, 기술자 업무범위의 부적절), 기타(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와 관련된 의견 및 해결방안
설문조사 발송 및 회수	설문조사는 모두 80명에게 발송하여 75명의 설문조사지 회수하였고 최종46부를 선정하여 연구시행

표 3. 설문분석

구 분	내 용
실무경력 년수	3년 미만 21.74%(10명), 3년 이상~5년 미만 4.35%(2명), 5년 이상~7년 미만 4.35%(2명), 7년 이상~10년 미만 6.52%(3명), 10년 이상 63.04%(29명)
건설사업관리 등급	특급 93.49%(43명), 고급 2.17%(1명), 중급 2.17%(1명), 초급 2.17%(1명)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축물	공공시설 47.83%(22명), 공동주택 52.17%(24명)
건설사업관리 가장 큰 문제점 (기술자 배치의 부적절)	공공시설 (22명) 배치인원 부적절 59.09%(13명), 배치기간 부적절 22.73%(5명), 업무범위 부적절 18.18%(4명)
	공동주택 (24명) 배치인원 부적절 45.83%(11명), 배치기간 부적절 12.5%(3명), 업무범위 부적절 41.67%(10명)

4. 결 론

본 연구에서 건설사업관리 가장 큰 문제점(부적절)으로 공공시설에서는 기술자 배치인원, 배치기간 및 업무범위의 순으로 나타났고, 공동주택에서는 기술자 배치인원, 업무범위 및 배치기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인 배치인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참 고 문 헌

1. 신현정 외 1인, 건설사업관리 제도개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제14권 제1호), 2014
2. 오은호 외 3인, 건설감리업계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방향,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제11권 제2호), 2011
3. 한재구 외 3인, 건설감리제도의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제11권 제1호), 2011
4. 송상훈 외 1인, 건설현장 관리기술에 대한 한·일간 비교분석 예비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지(제10권 제6호), 2010
5. 박환표 외 3인,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대가 작성방향에 관한 연구,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제10권 제2호), 2010